동이 담지된 모더나이트 상에서 NO의 분해 및 환원 반응

*이창용・모용기**・*최고열**

천안공업대학 환경공업과 ·*서울산업대학교 화학공학과

Decomposition and Reduction of Nitrogen Oxide on Copper Loaded Mordenites

Chang-Yong Lee · Yong-Ki Mo* · Ko-Yeol Choi*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, Chonan National Technical College *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,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

요 약

동을 담지한 모더나이트를 이용하여 고정충 연속호름 반응기에서 NO 분해와 CO에 의한 NO 환원을 실 시하였다. NO 분해에서는 많은 동함량에서 Cu[°]/HM이 CuO/HM보다 높은 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다. 이것은 Cu[°]/HM과 CuO/HM에 존재하는 Cu²⁺이온의 양과 CuO의 환원성 동의 차이에 관련된다고 보인다. NO 환원 에서는 적은 동함량에서 Cuo/HM이 CuO/HM보다 높은 환원 활성을 나타내었다. 이것은 Cu[°]/HM과 CuO/ HM에 존재하는 CuO의 환원성과 입자 크기 등의 차이에 관련된다고 보인다.

ABSTRACT : Catalytic decomposition and reduction of NO have been carried out on copper loaded mordenites in a packed bed flow reactor. For the decomposition of NO, Cu^o/HM exhibited higher activities than CuO/HM at high copper content, which may be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u²⁺ ions and the reducibility of CuO between Cu^o/HM and CuO/HM. However, Cu^o/HM showed higher reduction activities than CuO/HM at low copper content. This result may be dependent on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high-reducibility CuO between Cu^o/HM and CuO/HM.

keywords:

1. 서 론

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량 배출되는 NOx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청정 기 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최 근에 개발된 가솔란을 사용하는 린번 엔진이나 경유 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은 과잉 공기를 사용하여 연 료의 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연소 효율이 향상되지만 thermal NOx가 문제가 되고 있다. 따라서 고효율 연 소 기관의 개발에 있어 NOx의 저감 기술 개발이 시

청정기술 제8권 제3호

급히 요구되고 있다.

DeNOx 기술은 촉매 분해 반응(catalytic decomposition), 선택적 무촉매 반응(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), 비선택적 촉매 환원(nonselective catalytic reduction), 선택적 촉매 환원(selective catalytic reduction) 등이 있다. 그 가운데 촉매를 이용한 오염 물질 제거 방 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, 특히 SCR은 높은 전화율 과 안정적인 반응성으로 NO 저감에 활용되고 있다 [1-4] SCR의 환원제로는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, 탄화 수소 등이 사용되는데 암모니아의 경우 2차 오염물질 생성, 부식, 과도한 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문제점이 있 다. 한편, 촉매를 이용한 NO의 분해는 NO 환원에 비 하여 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장 이상적인 NO 제거 방법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 분해 촉매로는 다양한 산화물과 동이온 제올라이트가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[5-7], 제올라이트 촉매의 경우 산화물 촉매에 비해 활성은 우수하지만 높은 공연비 조건에 서 산소에 의한 피독이 문제가 된다.

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 Y 및 ZSM-5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모더나이트에 함량을 달 리하여 동을 담지한 후 환원·산화 또는 환원 처리 하여 촉매를 제조하고 XRD와 ESR을 이용하여 동특 성을 분석하고 NO의 분해 활성과 CO에 의한 NO의 환원 활성을 고찰하였다.

2. 실 험

2.1 촉매 제조

2.1.1 HM 제조

Na형 모더나이트인 Zeolon-900(Norton Co, SiO₂/ Al₂O₃ = 10)을 1 M NH4Cl 용액으로 80℃에서 24시 간 동안 이온교환하고 염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중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120℃에서 건조 시켜 암모늄형 모더나이트(NH4M)를 제조하였다. NH4M 을 500℃에서 4시간 동안 공기로 소성시켜 수소형 모 더나이트(HM)을 제조하였다. 제조된 HM에 Cu(NO₃)₂ 용액으로 여러 가지 무게 비로 함침시키고 120℃에서 건조한 후 400℃에서 공기로 소성하였다.

2.1.2 촉매 전처리

동이 담지된 시료를 500℃에서 수소와 산소로 각각 2시간과 1시간동안 환원·산화 처리하거나 또 는 500℃에서 수소로 2시간 환원 처리하여 최종적으 로 촉매를 제조하였다. 촉매의 표시는 환원·산화 처 리한 시료는 CuO/HM 그리고 환원 처리한 시료는 Cu^o/HM으로 나타내었다.

2.2 특성 분석

2.2.1 XRD 분석

시료 중의 동의 상태와 모더나이트의 결정화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Rigaku사의 X-ray Diffractometer (D/Max-C)를 사용하여 XRD 분석을 하였다. X-선원 은 CuKa이고 스캔속도는 8 */min이었다.

2.2.2 ESR 분석

시료 중의 Cu²⁺이온을 분석하기 위하여 Varian 사의 E-4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ESR 분석을 하였 다. 분석 방법은 시료 500mg을 ESR cell에 넣고 탈기 한 다음 상온에서 측정하였다.

2.3 반응 실험

NO 분해는 60~80 mesh 크기의 촉매 시료를 석영관으로 제조한 고정층 반응기에 넣고 상압 하에 서 실시하였다. 반응물로는 NO(1.97%)/He을 사용하 였으며 GHSV는 900h⁻¹이었다. CO에 의한 NO 환원 은 NO 분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. 반응물로는 CO(1850ppm)/He과 NO(1.97%)/He의 흔 합 가스를 사용하였고 GHSV는 19800h⁻¹이었다.

반응 생성물의 분석은 Varian사의 GC(GC-3700)를 사용하였고 GC의 칼럼은 CTR-1을 사용하였다. NO 의 분석은 Advanced Pollution Instrumentation사의 NOx Analyzer(2000AH)를 사용하였다. 모든 시료에 대하여 전화율은 500℃에서 활성이 일정하게 나타나 는 반응 개시 2시간 경과 후에 측정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3.1 특성 분석

Fig. 1과 Fig. 2에 동함량 3%와 7% CuO/HM과 Cu[°]/HM 시료의 X-선 회절도를 나타내었다. CuO/HM 과 Cu[°]/HM 시료의 X-선 회절도에서 19~30°사이의 5 개 결정면에 대한 모더나이트 특성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[8-9]. CuO/HM과 Cu[°]/HM 시료에서 모더 나이트의 결정화도는 동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95% 이상으로서, 모더나이트의 결정성 저하는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.



Fig. 1. XRD powder patterns of CuO/HM. Copper content, a: 3%, b: 7%.



Fig. 2. XRD powder patterns of Cuo/HM. Copper content, a: 3%, b: 7%.

한편, Fig. 1의 X-선 회절도에서는 35.6°와 38.8° 에서 CuO 특성 피크가 나타나며 Fig. 2의 X-선 회절 도에서는 43.3°에서 Cu° 특성 피크가 나타난다. 또한 CuO 특성 피크와 Cu° 특성 피크는 시료 중의 동함 량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. 이러 한 결과로부터 CuO/HM 시료에서 동은 CuO로 존 재하는 반면 Cu°/HM 시료에서는 동이 Cu°으로 존 재함을 알 수 있다.

Fig. 3은 동합량 3%와 7% CuO/HM 시료의 ES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. Cu²⁺이온에 의한 높은 스 핀밀도를 갖는 전형적인 ESR 스펙트럼을 보여준다. 이들 시료의 ESR 스펙트럼 강도를 이온교환을 36% 인(동함량 기준으로 약 3%) Cu²⁺HM 시료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 각각 20%와 50% 정도로 나타났다.



Fig. 3. ESR spectra of CuO/HM. Copper content, a: 3%, b: 7%.

이러한 결과로부터 이들 CuO/HM 시료에서 Cu²⁺이온 함량은 동함량에 비하여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. CuO/HM 시료는 이온교환이 아닌 수용액 함침으로 동을 담지하였기 때문에 환원처리 후 재산 화처리 과정에서 Cu²⁺이온보다는 CuO로의 재산화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[10]. 결국 CuO/HM 시료에서 담지된 동의 대부분은 Fig. 1에서 확인되는 CuO로 존재하며 동의 일부가 Cu²⁺이온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. 한편, Fig. 3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Cu[°]/ HM 시료의 경우에는 동이 Fig. 2에서 보여주는 Cu[°]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ESR signal이 나타나지 않 았다.

3.2 NO 분해

Fig. 4는 동합량 7% CuO/HM과 Cu^o/HM 시료 에 대하여 반용시간에 따른 NO의 분해 전화율을 나 타낸 것이다. 담지된 동이 CuO와 Cu²⁺이온으로 존 재하는 CuO/HM 시료에서는 초기 전화율이 약간 증가하다가 반응이 약 2시간 경과한 후에 일정하게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불균일 촉매에서 흔히 나타 나는 현상으로써 촉매 활성점의 반응 분위기에 대한 적용 및 안정화에 기인하는 것이다. 담지된 동이 Cu° 상태로 존재하는 Cu°/HM 시료에서는 높은 초 기 전화율이 감소하다가 반응이 2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일정한 활성을 보여준다. 이러한 현상은 Cu°이 흡착 산소에 의하여 CuO로 산화되기 때문으로써 Cu°의 산화가 완료되면 일정한 활성을 나타낸다[6]. 결국 Cu°/HM 시료에서 동은 Cu° 상태로 존재하지 만 반응이 진행되면서 동의 상태는 CuO/HM 시료 와 마찬가지로 CuO 및 Cu²⁺이온과 같은 산화 상태 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.



Fig. 4. NO conversion at 500℃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on CuO/HM and Cu°/ HM. Copper content = 7%. Solid key: CuO/HM, open key: Cu°/HM.

Fig. 5는 CuO/HM과 Cu[°]/HM 시료의 동함량 에 따른 NO의 분해 전화율을 나타낸 것이다. CuO/ HM과 Cu[°]/HM 시료 모두 동함량에 따라 NO 전화 율이 중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O₂는 거의 검출되 지 않았으며 N₂O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. NO 분해 는 두 종류의 경로로 진행된다. Winter[11]에 따르면 N₂O를 경유하는 반응 (1)은 보통 450℃ 이하에서 일 어난다. 이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NO7 직접 N₂와 O₂로 분해되는 반응 (2)가 일어나는데 O₂가 거의 검 출되지 않는 것은 생성된 O₂가 NO와 반응하여 NO₂ 를 생성하기 때문이다.

 $2NO \to N_2O + \frac{1}{2}O_2 \to N_2 + O_2$ (1)

$$2NO \rightarrow N_2 + O_2$$





Fig. 5. NO conversion at 500°C as a function of copper content on CuO/HM and Cu°/ HM. Solid key: CuO/HM, open key: Cu°/HM.

한편, CuO/HM과 Cu^o/HM 시료 모두 반응이 2시간 경과한 후에는 동이 산화 상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함량 5% 이상에서 Cu^o/HM 시료의 분 해 활성이 CuO/HM 시료보다 높게 나타난다. CuO/ HM 및 Cu^o/HM 시료의 NO 분해 활성은 동이온 및 산화동의 환원성에 관계된다. Iwamoto 동[5]은 동이온교환 제올라이트에서 NO의 분해 활성은 Cu²⁺ 이온의 환원성과 활성점인 Cu⁺이온의 안정성에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. 동이온교환 모더나이트에서 이온교환율이 낮을 때는 주로 안정성이 큰 유리 Cu²⁺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교환율이 높아질수록 환원성이 좋은 Cu²⁺이온 cluster가 증가한다[12]. 또한 환원· 산화처리한 동담지 모더나이트에는 환원성이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CuO가 존재하며 동함량이 증가할 수록 환원성이 좋은 CuO 양도 증가한다[14]. 따라서 CuO/HM과 Cu°/HM 시료 모두 동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중가하는 것은 환원성이 좋은 동이온과 CuO이 중가하기 때문이다. 또한 많은 동함량에서 발현하는 Cu°/HM과 CuO/HM 시료의 분해 활성 차이는 시료에 존재하는 Cu²⁺이온의 양과 CuO의 환 원성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. 이는 Cu°/ HM 시료의 경우 Cu°의 산화가 분해 생성되는 O2에 의하여 이루지기 때문에 CuO/HM 시료의 경우보다 환원성이 큰 CuO의 생성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된다.

3.3 NO 환원

Fig. 6은 동함량 7% CuO/HM과 Cu^o/HM 시료 에 대하여 CO/NO 몰비에 따른 NO의 환원 전화율 을 나타낸 것이다. CuO/HM과 Cu^o/HM 시료 모두 에서 몰비에 따라 활성이 거의 선형적으로 중가하는 데 N₂O는 검출되지 않았다. CO/NO 몰비가 낮은 분위기에서는 NO와 CO의 경쟁 흡착에서 NO가 우 세하므로 반응 (3), (4), (5)가 전체 반응을 주도하게 된다[13]. 따라서 CO/NO ≤ 1(양론비)과 같은 낮은 물비에서는 반응 (4)에 의하여 CO 양이 많을수록 활 성이 중가한다고 볼 수 있다. 한편, 낮은 몰비에서는 반응 (5)에 의하여 N₂O가 많이 생성하지만 Fig. 6의 결과에서 N₂O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반응 온도가 500℃로서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.

$$NO \rightarrow N^* + O^*$$
 (3)

 $O^* + CO \rightarrow CO_2$ (4)

 $N^{\star} + NO \rightarrow N_2 + O^{\star} (N_2O)$ (5)

Fig. 7은 CO/NO = 0.33에서 CuO/HM과 Cu^o/

HM 시료의 동함량에 따른 NO의 환원 전화율을 나 타낸 것이다. 동함량 5% 이하에서는 CuO/HM 시료 에 비하여 Cu[°]/HM 시료의 활성이 높게 나타난다. 동함량 5% 이상에서는 CuO/HM과 Cu[°]/HM 시료 가 거의 비슷한 활성을 보여주며 동함량 7% 시료가 최대 활성을 보이고 있다. 동함량 7% CuO/HM 및 Cu[°]/HM 시료의 NO 전화율은 약 30%로써 CO/NO = 0.33에서 NO의 이론적 최대 전화율인 33%와 비교 하면 이돌 시료의 활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.



Fig. 6. NO conversion at 500°C as a function of CO/NO mole ratio on CuO/HM and Cu°/HM. Copper content = 7%. Solid key: CuO/HM, open key: Cu°/HM.



Fig. 7. NO conversion at 500°C as a function of copper content on CuO/HM and Cu°/ HM. CO/NO = 0.33. Solid key: CuO/ HM, open key: Cu°/HM.

청정기술 제8권 제3호

Fig. 8은 CO/NO = 0.5에서 CuO/HM과 Cu^o/ HM 시료의 동함량에 따른 NO의 환원 전화율을 나 타낸 것이다. 동함량 7% 이하에서는 CuO/HM 시료 에 비하여 Cu^o/HM 시료의 활성이 높게 나타난다. 동함량 7% 이상에서는 CuO/HM과 Cu^o/HM 시료 의 활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. CuO/HM 시료 에서는 동함량 9%가 최대 활성을 보이지만 Cu^o/ HM 시료에서는 동함량에 따라 활성이 약간 중가하 지만 증가 경향으로 볼 때 동함량 11% 근처에서 최대 활성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. 동함량 9% CuO/HM 및 Cu^o/HM 시료의 NO 전화율은 약 43%로써 CO/ NO = 0.5에서 NO의 이론적 최대 전화율인 50%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.



Fig. 8. NO conversion at 500°C as a function of copper content on CuO/HM and Cu°/ HM. CO/NO = 0.5. Solid key: CuO/ HM, open key: Cu°/HM.

CuO/HM 및 Cu^o/HM 시료의 NO 환원 활성 은 NO 분해와 마찬가지로 동이은 및 산화동의 환원 성에 관계된다. 그러나 NO 분해 활성을 나타낸 Fig. 5의 결과와는 달리 Fig. 7과 Fig. 8의 결과에서는 동 함량이 적을 때 Cu^o/HM 시료의 활성이 CuO/HM 시료보다 늪게 나타나며 특히 동함량 1% 시료의 경 우 CuO/HM 시료는 활성이 거의 없지만 Cu^o/HM 시료는 비교적 높은 활성을 보인다. 이러한 결과로부 터 CuO/HM 시료에서 환원성이 좋은 CuO의 양은 Cu^o/HM 시료에 비하여 적으며 동함량이 적을 경우 그 차가 크다고 추측된다. 따라서 적은 동합량에서 발현하는 Cu^o/HM과 CuO/HM 시료의 환원 활성 차이는 시료에 존재하는 환원성이 좋은 CuO의 양에 관련된다고 생각된다.

4. 결 론

수소형 모더나이트에 함량을 달리하여 동을 담 지하고 500℃에서 H2/O2로 환원·산화 또는 H2로 환원 처리하여 제조한 CuO/HM과 Cu^o/HM 촉매 상에서 NO 분해와 CO에 의한 NO 환원을 실시하였 다. 환원·산화 처리한 CuO/HM에서 동은 CuO와 Cu^{2*}이온으로 존재하고 환원 처리한 Cu⁹/HM에서는 동은 Cu°로 존재하지만 NO 분해 또는 NO 환원 반 응이 진행되면 CuO/HM처럼 동은 산화 상태로 존재 하였다. NO 분해에서는 많은 동함량에서 Cu°/HM 이 CuO/HM보다 높은 분해 활성을 나타냈는데 이 것은 시료 중에 존재하는 Cu²⁺이온의 양과 CuO의 환원성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. NO 환원 에서는 적은 동함량에서 Cu°/HM의 환원 활성이 CuO/HM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료 중에 존재하는 환원성이 큰 CuO의 양의 차이에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.

참 고 문 헌

- 1. Yamaguchi, M., Matsushita, K. and Takami, K.; Hydrocarbon Processing, 101, Aug. (1976).
- Marzo, L. and Fernandez, L.: Hydrocarbon Processing, 87, Feb. (1980).
- Hill, H. L.: Hydrocarbon Processing, 141, Feb. (1981).
- 4. Leimkuehler, J., Ellison, W. and Makansi, J.: Power, 53, Aug. (1986).
- Iwamoto, M., Yahiro, H., Kutsumo, T. and Kagawa, S.: "New Development in Zeolite Science Technology", ed. by Murakami, Y. et al., Elsevier, Amsterdam, p 943 (1986).
- Lee, C. Y., Choi, K. Y. and Ha, B. H.: Applied Catalysis B: Environmental, 5, 7 (1994).

- Spassova, I., Khristova, M., Panayotov, D. and Mehandjiev D.: J. Catal., 185, 43 (1999).
- Cullity, B. D.: "Elements of X-ray Diffraction", Addison-Wesley, London, pp 32~78 (1978).
- Ballmoos, R. V. and Higgins, J. B.: "Collection of Simulated XRD Powders Patterns for Zeolites", 440S-441S (1990).
- 10. Lee, C. Y., Choi, K. Y. and Ha, B. H.: HWAHAK KONGHAK, 26, 404 (1988).

- 11. Winter, F. R. S.: J. Catal., 22, 158 (1971),
- Kucherov, A. V., Slinkin, A. A., Kondrat'ev, D. A., Bondarenko, T. N., Rubinstein, A. M., and Minachev, Kh. M.: Zeolites, 5, 320 (1985).
- Rewick, R. T. and Wise, H.: J. Catal., 40, 301 (1975).
- 14. Lee, C. Y., Han, K. H. and Ha, B. H.: Microporous Materials, 11, 227 (1997).